

10월 13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0월 13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2

wr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증시, 다우 9900선 터치 후 차익실현에 혼조	뉴욕 증시가 12일(현지시간) 혼조세로 장을 마침.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반영한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맞서며 강세를 제한했음.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20.86포인트(0.21%) 상승한 9885.80을, 나스닥 지수는 0.14포인트(0.01%) 하락한 2139.14를, S&P500 지수는 4.70포인트(0.44%) 오른 1076.19를 각각 기록. 이날 뉴욕 증시는 컬럼버스데이 휴일을 맞아 거래가 비교적 한산했고, 이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됐음. 주요 지수는 3분기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반영하며 상승세로 출발했음. 특히 다우 지수는 장 초반 9900포인트 선을 넘어섰음. 유럽에서 필립스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번주 실적을 발표하는 인텔, AMD, IBM, 구글 등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음. 아울러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전망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73달러를 상향 돌파한 점도 증시 상승을 지지했음. 그러나 장 막판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주요 지수는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음. 다우 지수는 한 때 하락반전했고, 나스닥 지수는 결국 약보합으로 마감했음.
필립스 어닝서프라이즈에 기술주 상승	유럽 최대 가전업체인 필립스는 3분기에 순이익 1억7400만유로와 매출액 56억2000만유로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4470만유로 적자와 54억500만유로를 크게 상회한 것임. 필립스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번주 실적을 내놓는 기술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음. 여기에 UBS가 주요 기술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한 점도 호재가 됐음. 인텔은 1.14% 상승했고, AMD는 4.42% 올랐음. IBM과 구글은 각각 0.88%, 1.51% 상승했음. 반면 샌디스크는 UBS가 `매도` 의견을 제시한 영향으로 2% 넘게 하락했음. 델과 아마존도 2%대 하락률을 나타냈음.
NABE, 느린 경기회복 전망	NABE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4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은 경기회복세가 느리게 진행됨에 따라 일자리 회복도 오래 걸릴 것으로 내다봤음. 응답자의 54%는 2012년에 가서야 720만개의 일자리가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음. 33%는 2013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음. 2013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도 5%에 달했음. 반면 일자리가 2012년 이전에 회복될 것이라고 본 이코노미스트는 8%에 그쳤음. 이번 NABE 설문조사에서 실업률은 내년 1분기에 10%로 치솟고, 내년 말에도 9.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음. 또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올 하반기에 2.9% 증가하고, 내년에는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음.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배럴당 73달러 넘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약세를 기록한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1.50달러(2%) 상승한 73.27달러에서 마감했음. 이에 따라 뉴욕 증시에서 셰브론은 1.35% 올랐음. 마라톤 오일과 헤스는 1%대 안팎의 오름세를 나타냈음. 엑손모빌은 코스모스로부터 40억달러 규모의 가나 주빌리 유정 개발 지분을 인수했다는 소식까지 겹치며 1.26% 상승했음.
노벨경제학상에 오스트롬·윌리엄슨	엘리너 오스트롬 인디애나대 교수와 올리버 윌리엄슨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UC버클리) 교수가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음. 노벨 위원회는 선정 배경으로 지배구조에 대한 이들의 연구 업적을 꼽았음. 오스트롬 교수는 공공 재산이 사용자 집단에 의해 어떻게 성공적으로 관리되는지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음. 또 윌리엄슨 교수는 기업들이 갈등 해소의 구조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이론을 세웠음. 노벨위원회는 이들의 연구가 지난 30년 동안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음. 한편 오스트롬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는 첫 여성이 됐음.
글로벌 철강 수요, 바닥치고 반등	글로벌 철강 시장이 바닥을 치고, 내년 철강 수요는 9.2%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1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세계철강협회(WSA)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수요가 늘 것이라고 이같이 내다봤음. 이안 크리스마스 WSA 사무총장은 베이징에서 인터뷰를 갖고 "철강 시장이 바닥에 도달했다는 명확한 징후들이 포착된다"며 "철강 소비는 내년 12억톤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음. 철강업체들은 주요 국가들에서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자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추세임. 3분기 연속 손실을 기록했던 세계 최대 철강업체 아르셀로미탈은 지난 분기에 세전 이익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도 "하반기 실적은 자동차 및 가전제품 수요 증가로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중국의 철강 수요가 글로벌 수요를 지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크리스마스 사무총장은 중국에서의 수요 급증에 주목하면서 "중국의 철강 소비는 올해 19% 증가한 5억2600만톤을 나타낼 것"이라며, "글로벌 수요 감소분을 상쇄할 것"이라고 말했음. 미국의 철강 수요는 올해 39% 감소하고, 내년 19% 증가한 7200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음. 유럽의 수요 역시 올해 33% 줄고 내년 12.4% 늘 것으로 추정됐음. 재고를 제외한 글로벌 철강 수요는 올해 8.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음. 감소율은 지난 4월(14%)보다 상당히 줄어든 것임. 만약 중국의 수요를 배제한다면 올해 감소율은 24%를 나타낼 것이라고 WSA는 추정했음. 중국의 철강 생산은 올해 정부의 경기 부양에 힘입어 사상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음. 중국의 기준 철강 가격은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지난해 11월 이후 20% 상승했음. 지난해에도 중국은 일본, 미국, 러시아, 인도 등의 철강 생산을 합친 것 보다도 많은 양의 철강을 생산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Theme Analysis



Fixed Income Report

LEADING LIGHT



유성엽 팀장

T 2009-7080

E syy@leading.co.kr

권효정

T 2009-7085

E hjkwon@leading.co.kr

이유진

T 2009-7078

E yjlee@leading.co.kr